

수산업 발전·목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김청용목포수협조합장

목포시민대상 경제부문 수상...오는 30일 시상식 서남권 친환경 종합지원단지 신축·사회공헌 공로

김청용(60·사진) 목포수협조합장이 지역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 발전과 목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목포시민대상을 수상한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목포시민의 상심사위원회에서 김 조합장을 경제 부문 2024년 목포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 오는 30일 제22회 목포시민의날에 시상한다.

목포수협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 설립, 올해로 창립 87주년이 되는 대한민국 서남권의 대표적인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과거 4대 항 6대 도시의 화려한 번영기가 있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 변화에 오랜 침체기에 빠져있었으며, '선장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6년 제20대 조합장으로 취임해 2대, 22대 조합장을 연임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북항 지역을 목포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김 조합장은 사업구조 개편과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85년 동안 구도심에 자리했던 목포수협을 국내 최대 규모의 '서남권 친환경 종합지원단지'에 신축하고 동시에 북항으로 이전해 새



로온 백년대계를 시작했다.

또한 조합원 소득 증대(배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76억원을 생산어업인에게 배당과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전국 수협 위판고 1위 달성과 상호금융사업 수도권 진출로 2016년 총 5천억원이던 총사업 규모를 지난해 기준 2조원 안팎으로 성장시켜 조합원의 수익 증가, 선창 주변 경기활성화 등을 이끌었다.

김 조합장은 수산업 발전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산어촌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농특위 수산어촌 분야 성과의 대외적 인식을 제고했다. 또 부가가치 창출, 수출 증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수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도 전파하고 있다.

목포장학재단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인재 육성에 기여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2천500만원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에도 앞장섰다.

목포 해안누리길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등 해양쓰레기 청소 봉사 활동도 하고 있으며, 매년 1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해 2만여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며 어족자원 증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임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최승복(55·사진) 신임 부교육감이 19일자로 부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임 최승복 부교육감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공공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팀장, 목포대학교 사무국장,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며 "교육구성원과 더불어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중심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광주 첨단지구대, 노인 대상 범죄 예방활동

광주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는 추석 연휴 기간 관내 원룸 밀집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방범지단을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빈집털이 예방 수칙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범죄 예방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로당을 방문해 검찰 사칭, 택배, 저금리 대출, 자녀 사칭 등 어르신들이 취약한 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대처법을 안내했다.

김영선 첨단지구대장은 "각종 범죄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지역주민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치안 안정을 유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장흥경찰, 탈북민에 '추석 명절 선물' 전달

장흥경찰서는 "추석을 맞아 최근 경찰서 1층에서 장흥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게 과일, 쌀, 김, 참기름 등 한가위 선물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탈북민은 "명절이 되면 고향과 고향 음식 등이 생각나 더 외로움을 느끼는데, 매년 잊지 않고 온정을 나눠주는 이들이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탈북민이 장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다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정충=노영록기자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사고 예방 점검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추석 연휴 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짐에 따라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지난 10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서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 방문해 명절 연휴 해상교통을 이용한 관내 도서지역 이동 현황 등을 살피고,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객선 운항을 당부하는 한편,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산구, 제1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특별상'

광주 광산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광주·전남권에서 유일한 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 활동을 통해 업무수행 방식을 효율화하고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광산구는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설계를 위한 사회적저방 건강관리소 운영 사업'을 통해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과 운동, 식단 등 생활 습관 변화에 기반한 사회적저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사후 치료 및 의존적 돌봄서비스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 건강한 노후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비용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에 광산구의 의료·돌봄 연계 시스템 운영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해당 사업으로 광산 시민부터 전국민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옥근기자



곽도근 나주 봉황면발전협의회장 '온기 나눔' 실천

나주시 봉황면은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곽도근 봉황면지역발전협의회장이 관내 경로당 62개소를 직접 방문해 한돈세트와 사인머스켓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곽도근 지역발전협의회장은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봉황면은 마을부녀회장(50명)으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과 송편나눔 봉사 활동을 펼쳐 관내 경로당 62개소와 독거어르신 102가구에 향기로운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제공했다.

김양기 봉황면장은 "온기 나눔을 실천해준 곽도근 지역발전협의회장님과 행복나눔봉사단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충환기자



농협 담양군지부, 담양동초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최근 담양동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문화 형성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담양동초교 학생 222명의 등굣길에 맞춰 담양 쌀로 만든 약밥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의 휴먼 예방 캠페인과 담양경찰서의 교통 안전 캠페인과 합동으로 펼쳐

졌으며,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청, 담양경찰서, 흥성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바다인 과장 및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복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은 "아침밥은 학생들의 두뇌 활동과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라며 "앞으로도 담양군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아침밥 먹기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정승균기자

농협 곡성군지부-시향가 '쌀 소비 촉진' 협약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최근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인 '시향가'와 곡성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쌀 가공품인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곡성축협 하나로마트에 전통주 판매존을 설치하는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쌀 소비 확대의 일환으로 '시향가' 막걸리 구매고객 대상 백세미 300g 증정 이벤트를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곡성 전통주 제조업체인 '시향가'는 지난 2019년 지역산 토란으로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올해 1월에는 '백세미'를 전통주 원료로 사용, '숙희'라는 이름을 붙여 곡성물에서 100%를 한정 판매했다. 1병당 3만원에 달하는 고가 소주였지만 판매 3일 만에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방현용 곡성군지부장은 "곡성쌀로 빚은 전통주 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쌀 가공품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진도경찰, '딥페이크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

진도경찰서는 "최근 진도중학교 정문에서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진도경찰서, 진도군청, 진도교육지원청,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도중학교 등이 참여했다.

진도경찰은 현수막과 포켓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홍보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품과 리플렛을 배부해 '딥페이크 제작·배포·소지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닌 심각한 사이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또한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 시 112·117 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진도군을 딥페이크 범죄 정정지역으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디지털 배움터' 운영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18일 "디지털 기기 활용이 미숙한 회원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수강신청 방법 등을 교육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움터는 지난 7월 찾아가는 CEO 간담회에서 수영 강습 신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 회원을 대상으로 9-12월 매월 1회 진남수영장과 망마국민체육센터 로비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 공단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관내 확인과 즉시 답변, 결제 방법 등을 설명하고 회원들과 함께 실습한다.

김유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배움터가 회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결제를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